

■ 월간 불교종합잡지 '불교저널' 7월말 창간

# 미래 지향 열린불교 제시 '기대'

진관스님·박경훈씨등 참여

21세기 밀레니엄 시대의 불교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새로운 이미지의 불교종합잡지가 탄생했다. 불교저널사(사장 진관스님)는 최근 서울 중구 목동동 23-1 신현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월간 불교종합잡지인 <불교저널>을 7월20일경 창간 목표로 준비에 바쁘다.

지난해 5월호를 끝으로 폐간한 <대중불교> 이후 교계에 불교잡지의 영향력이 급감한 상황에서 교리 시사 문화 신행 등을 아우르는 불교종합잡지의 발간은 척박한 불교계의 문화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높은 불교교양지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신국판 250쪽 분량으로 발행 예정인 이 잡지는 불교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해 기성, 신인을 불문한 원고와 건전한 비판정신을 담은 각종 문학 작품과 문학 및 시사평론, 신행수기, 신행관련 기사, 미담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불자들의 좋은 원고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스승예찬, 사자상승(師資相承)의 미담과 올바른 신행을 계도하는 글을 비롯 신행수기, 사찰탐방기 등 재가불자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발원 등은 새로운 불교신행의 모범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저널>은 창간호에 스님과 학계인사 100인에게 지난 한세기 동안 한국불교가 겪은 영광된 일과 부끄러운 일에 대해 설문을 받아 게재하고,

특집기사로 '미래의 과학은 불교의 적인가' 등 반자기가 '인간복제 해의불교 등 흥미있는 기사들을 준비하고 있어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불교저널> 편집인 박경훈씨는 "이제까지 신행 학술 미술 문학 등 분야별 불교잡지는 많이 나왔지만 그 폭을 넓혀 21세기 과학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불교종합 잡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진관스님이 발행인 겸 사장을, 박경훈 전 법보신문 주필이 편집인인, 황석현 전 법보신문 편집장이 편집위원을 맡았다. (02)2285-2421

김재경 기자(jkim@buddhania.com)



◇김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국보 81호)의 설명을 듣고있는 관람객들.

## 미륵반가상등 유물 325점

### 유럽인들 '한국 혼'에 감탄

'문화재 유럽순회전' 독일 에센서 개막

한국인의 관심과 예상이 담긴 '국보 및 국보급 문화재 유럽순회전'이 4일 독일 에센에서 개막했다.

'한국인의 혼을 찾아서'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에센을 시작으로 내년 7월까지 1년여 동안 독일·스위스 등 2개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독일 루어제단 주최로 에센의 유서 깊은 정원건축물인 빌라퀴젤에서 오는 10월17일까지 열리는 에센 전시회에는 김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국보 제81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국보 제83호), 송림사오층전탑내유물 등 불교유물 154점과 유교·무속신앙 관련 유물

171점이 전시돼, 유럽인들에게 우리의 예술과 문화를 이해시키고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오프닝 행사에는 로만 헤어초크 독일 연방 현 대통령과 요하네스 라우 대통령 당선자, 독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정양도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이협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이기주 주독일대사 등이 참석했다. 또 (사)민속놀이진흥회(회장 박병천)는 나비춤, 바라춤, 동래화춤 등 전통예술 공연을 식전 문화행사로 마련했다.

오종욱 기자(gbaou@buddhania.com)



◇전시포스터.

### '죽산예술제' 참가獨 미하일 베테

## 보이스 퍼포먼스 禪 메시지 전달



9일 밤 8시, 국내외 독특한 전위 예술을 해마다 선보여온 제5회 '죽산국제 예술제'가 펼쳐진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 용살리 야외마당. 희미한 무대 조명이래 편안한 인상의 한 독일인이 탐블라(인도 전통 성악 반주악기)를 갖고 등장한다. 수행자적인 풍모가 느껴져 다른 예술가들과는 한눈에 구별이 되는 이 음악가는 선승(禪僧) 출신의 미하일 베테(57).

탐블라의 애절한 선율에 맞춰 오버톤(배음) 보이스퍼포먼스가 연주됐다. 한 목소리가 저음으로 지속되면

서 다른 한편으로는 천상의 소리인 양 순수한 음조의 멜로디가 동시에 흘러 나온다. 차분하고 청아한 가락은 속세의 저든때를 다 날려 버릴 것 같이 마음속 깊숙히 파고 든다. 한국에서 초연된 이 연주를 감상한 관객들은 처음 접해 신기하기도 했지만 정신이 맑아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이 공연이 관객들에게 평화로움과 함께 선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게 된 데에는 베테씨가 70년부터 82년까지 일본 토토리, 오바나시 등지에서 식발

을 하고 선승으로 수행정진 했던 이력이 크게 작용한 것. 베테씨는 사찰의 문, 불상, 탑, 다도(茶道) 등에서 예술적 영감을 많이 얻고 있다고 한다.

"오버톤은 우주의 깊은 의미를 재삼 깨닫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베테씨는 "수행 경험을 살려 참선과 함께 오버톤 음악으로 명상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익 기자(jkim@buddhania.com)

## 베니스에 나뉜 '플라스틱 불상'

### 노상공씨 비엔날레 작품

이탈리아 베니스에 한국의 부처님이 나타났다. '모두에게 열린(APERTO over ALL)'을 주제로 10일 열린 '제48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에 노상공씨의 '불상-송배자들을 위하여'가 전시된 것.

공선과 관객의 시선에 따라 작품 세계가 변하는 '시퀀 장르'를 개척해 온 노씨는 이번에도 투명한 플라스틱 재료인 '시퀀'을 사용, 전통 예술의 주제를 현대적 감수성으로 드러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영처럼 보여지는 이 불상은 삼라만상의 불멸화를 속에서 화엄의 세계를 창조했다.

또 벽 전체에 반짝이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로 여러 겹의 동심원을 만든 설치미술 '전체를 위한 구멍'은 일루전(환상)과 같은 현상계를 상징하고 있다.

노씨는 "새로운 천년을 맞아 역사의 모든 것이 융화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느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2년마다 열리는 베니스비엔날레는 미국의 휘트니비엔날레와 브라질의 상파울로비엔날레와 함께 세계 3대 비엔날레로 꼽힐 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베니스비엔날레는 11월 7일까지 계속되며, 60개국에서 102명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베니스비엔날레에 출품된 불상. 공선과 관객의 시선에 따라 변화하는 이 불상은 불멸화를 속의 화엄세계를 상징하고 있다.

## 금동관음불 '귀환'

부여 전통예절원에 일본 삼보사 기증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이 일본에서 귀환했다. 구마모토(熊本)현의 삼보사가 충남 부여 백제유적의 전통예절원(대표 이효천)에 기증, 6일 봉안식을 가진 이 불상은 좌대를 포함한 높이가 41cm의 금동관음불.

구마모토 현립박물관에 따르면 이 불상은 고려시대의 미술 양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고려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불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구마모토현의 주민들도 삼보사 금동관음불을 '고려불'로 통칭하고 있다.

이 불상이 부여로 이운 된 것은 이효천 전통예절원과 삼보사 부주지 하라다센(原田千光)스님이 수년동안 '다도'를 통해 쌓아온 각별한 인연 때문.

부여군청 문화재단장은 "국내 전문학자들의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불상의 가치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 문화 단신

#### 18일 봉원사 영산재

한국불교대종 봉원사(주지인공)는 단오날인 18일 오전 9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지정기념 제11회 영산재를 시연한다.

영산재보존회(총재 박승삼스님) 주최로 봉행되는 이날 법회에는 인간문화재 박승삼·장벽용·이일용스님 등이 의식을 집전하고, 준보유자·전수 교육보조자·이수자와 신도등 1천여명이 동참한다.

영산재보존회는 이번 영산재에서 그동안 잊혀졌던 선가의 법구인 '간담'의 원형을 복원·공개할 예정이다. (02)392-3007

#### 사찰음식 무료강좌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성인스님)는 22일 개원 7주년기념 전통사찰음식 무료공개 강좌 및 시식회를 마련한다. 이번 강좌에서 성인스님은 '성인병 예방과 사찰음식' 다이어

트와 사찰음식' '보양과 사찰음식'을 주제로 이론과 버섯과 두부를 이용한 요리 실기를 각각 지도한다. (02)355-5964

#### 하계 교원 문화연수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8월 9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국의집'에서 '99 하계 교원을 위한 전통문화연수'를 실시한다.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이번 연수는 '한국문화재의 이해' '기록문화유산' '매장문화재' '문화교류' '한국사상' '현장답사' 등 8개 분야 21개 과목이 개설된다.

#### 문화정책 DB 개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은 연구보고서에 대한 풀텍스트(Full Text)DB 및 각종 문화정책관련정보DB를 개발, 인터넷을 통한 전자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자체 자료실소재지정보, 각 발간자료 목록, 정책연구보고서 초록 및 풀텍스트DB 등을 제공한다. 각 자료는 홈페이지 접속후 보고서 초록 메뉴를 통해 검색하며,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http://www.kcpi.or.kr

### 미륵사지석탑 해체보수 소위원회 발족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보수를 감독할 소위원회가 발족했다. 문화재청은 4일 '익산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소위원회'(위원장 김동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해체보수 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된 소위원회는 보수 및 수리, 석탑양식, 실측, 보존과학, 구조안전, 석조물분야 등 6개 분야의 관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김동현 위원장은 "소위원회는 앞으로 석탑의 해

체보수와 관련된 실측 및 해체, 보존처리, 보수복원공사 등의 제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기술적인 중요사항을 지도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륵사지석탑은 노후화로 인해 탑의 구조안전 문제가 제기돼 정밀구조안전 진단을 거친 끝에 지난해 해체보수하기로 결정됐다.

오종욱 기자

기막히게 슬프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수안스님 그림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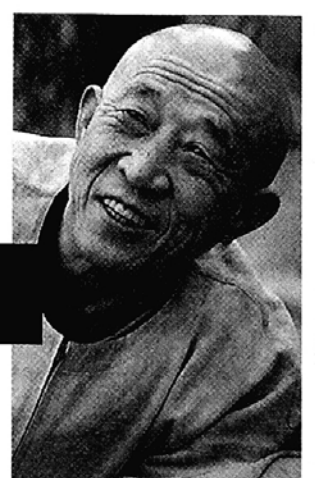


# 참 좋다, 정막 풍구냐

## 시끄럽다, 먹이나 갈아라!

### 개구쟁이 화가 수안스님의 재미있고 아름다운, 걸판진 에세이 한마당

물 속에도 부처가 있다며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고... 소펍의 음악을 들으며 아프리카 춤을 추고... 산에 살면서도 산이 그림이라고 고백하는 스님. 스님이 '먹이나 갈라'고 외친 진정한 뜻은...



\* 컬러그림 57점 수록

부처님 앞에 공양드리며 순진한 마음으로 써낸 담백한 문체와 소박한 그림 중앙일보 경제판 구도, 해학적 요소가 어우러진다. 한국일보 큰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을 되돌아보게 한다. 경향신문 난해한 법문이나 불교 용어는 한마디도 쓰지 않고 풀어 놓은 이야기와 그의 삶 자체가 따뜻한 정감을 담은 사자후의 설법이다. 문화일보 세상사에 대한 웅장한 글 50여 편이 독자들을 감동시킨다. 세계일보 승복의 찢긴 틈새를 찢는 새도 스님의 눈에는 모두가 부처. 아무런 구속도 없기에 그의 고백에도 거리낌이 없다. 동아일보 신화의 독특한 경지를 개척해 온 저자가 스님으로서의 독특한 삶을 보여주는 에세이 불교신문 세상을 보듬어 안는 스님의 진솔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사림과 사회 지혜의 보살인 문수의 눈, 해안의 눈이란 뜻이다. 이 글을 하나하나 읽는 것은 눈길이다. 무신설로 틀에 박힌 수도보다는 중생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는 악중세계를 통해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열일일보 즐거운 책읽기, 생각하는 책읽기 - 늘푸른소나무 / 전화 (02)2276-0290 / 팩스 (02)2276-0295